

2021 하반기

Into the village

지구촌나눔운동
2021 하반기 소식지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

Contents

- | | |
|---|---|
| <p>03 이사장 인사말</p> <p>04 GCS 사업 소개
태국 사업소, 새로운 희망을 잇는 의수족</p> <p>08 현장 이야기
르완다 농산물 저장고</p> <p>10 지구촌시민교육
세계시민을 위한 한발 앞으로!</p> <p>12 후원자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p> | <p>16 GCS NEWS</p> <p>18 비하인드 스토리
지구촌나눔운동의 23살을 축하하며</p> <p>20 후원신청서</p> |
|---|---|

이사장 인사말

식사 한 끼의 선물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마리 오'라는 작은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여간해서는 외식을 하기 어려울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특별히 가게 된 겁니다. 오순도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벌써 식사비를 내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식사비를 냈지?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너무 궁금했지만, 이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접받은 한 끼의 식사는 그 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훗날 모르는 사람들의 식사비를 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문경새재 식당에서 더덕구이를 먹던 선남선녀가 어쩌나 사랑스럽던지, 축복하는 뜻으로 물레 밥을 샀지요. 양양에서는 막국수를 맛있게 먹던 군인들이 든든하고 대견해 보여서 식사 한 끼를 몰래 선물했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 했다는 젊은 내외를 만났을 땐 안쓰러워서 식사비를 건네줬지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건 대접받는 것만큼이나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초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힘겨운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국 국경 지역에는 미얀마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희망을 잃은 채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요.

지구촌나눔운동에서는 그동안 미얀마 귀향민의 정착을 돕던 지역개발 사업을 잠시 멈추고, 난민들의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와 함께 요긴한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희망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수직적 개념이자 수평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을 다음 세대로 똑같이 누리게 하자는 것이 수직적 개념이라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자는 것이 수평적 개념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지구촌나눔운동은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도약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구촌 이웃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혜경



GCS 사업 소개

새로운 희망을 잇는 의수족

지구촌나눔운동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뢰 피해자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 카렌주 장애인 의족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화를 가져다준 의족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내전의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들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지역인 카렌주에는 내전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소수민족 카렌족과 미얀마 정부 군과의 대치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뿐더러, 군부 세력에 밀려 인접 국가인 태국 국경까지 국민의 신분을 잃은 채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의 내전으로 많은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카렌주의 주도인 파안 지역에만 약 1,500여 명의 지체장애인이 존재합니다.

의족워크숍센터



새로운 삶을 이끌 튼튼한 의수족

2016년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지원으로 미얀마 카렌주 끌로요레 마을에 의족워크숍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태국 매솟 지역에서 오랜 시간 지뢰 피해자들에게 소중한 의족을 지원한 메따오 클리닉 의족센터는 시시각각 변하는 태국-미얀마의 국경 상황과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족워크숍센터에 의족 제작 기술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건축한 의족워크숍센터는 지역 내 유일한 의족지원센터가 되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메솟 협력센터와 함께 의족워크숍센터가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튼튼한 의수족을 자체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수많은 지뢰 피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다리를 선물하였습니다.

의수족 지원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의 가족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뢰와 폭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 카렌주 장애인 의족지원 사업'은 3년간 총 326명의 지뢰 피해자들에게 의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 역시 향상되었으며, 스스로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찾고 만들면서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내전과 수많은 지뢰 피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카렌족 지뢰 피해자와 지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를 넘어 자립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지구촌나눔운동은 앞으로도 이들이 건강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마을의 저 같은 의족 환자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의족센터를 건립해주시고 또 지원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쏘라찌 씨

“다리를 잃은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목숨을 잃지 않도록 치료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족을 지원해주신 많은 분 덕분에 전 다시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쏘에씨 씨



“의족워크숍센터 건립을 위하여, 카렌주 자치 정부로부터 난민 재정착 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끌로요레 마을 한편에 숲으로 우거진 한 블럭의 땅을 제공받아 개간 작업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 전입니다. 프로젝트를 알리기 시작했을 때, 지역 내 많은 지뢰 피해자들이 의족을 지원받기 위해 더 이상 국경을 넘으며 긴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표정들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5년 동안 센터 내 테크니션들의 기술 숙련도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많이 발전했고, 운영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량 역시 많이 발전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무엇보다 첫 시작부터 자발적으로 무엇이든 참여하여 돕고자 하는 많은 지뢰 피해자들의 단순히 의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5년이 지나도 처음과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의족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받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 무엇이든 노력과 봉사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국 사업소 고미즈 국장

*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춘강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합니다.

현장 이야기_르완다 농산물 저장고

안전한 농산물 저장고를 설치하다!

지난 2020년, 지구촌나눔운동 르완다 사업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르완다 주민조직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수확된 곡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곡물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장고 없이 농산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현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저장고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마을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전해드립니다.

곡물 저장소가 중요한 이유

르완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체 산업 중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1차 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 종사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농산물을 재가공하거나 유통하는 등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르완다 농민 대부분은 가난한 영세농으로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농업생산량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종자 개량, 비료, 관개 설비 등 농업 투입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가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곡물 수확 후 저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

올해부터 나루바카(NYARUBKA) 지역의 농부들은 올해 첫 번째 농기(20.09~21.02)를 마친 후 지속해서 저장고에 농산물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2022년 첫 번째 농기를 준비하는 지금, 지난 일 년 동안 농부들이 저장한 곡물은 무려 5.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장고가 생긴 후에 현지 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동 관리의 위생 시설에 곡물을 저장 및 보관함으로써 이전처럼 금방 부패하거나 보완·관리가 소홀해 도난당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 때문에 안정적인 곡물 수확이 어려웠던 농부들도 이제는 곡물을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시장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르완다 사업소 Aimable TWAGIRAYEZU PM(오른쪽)

“우리 그룹은 대두 115kg을 저장했는데, 저장할 당시 대두 가격은 kg당 350~400프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두 가격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곡물을 미리 저장해놓지 않았다면 더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는 수확물을 저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농부들 또한 저장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리고 장려할 것입니다.”

자조 그룹 일원 중 'Biziyaremye Vedaste'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자립

특히 지난 9월 초에 르완다 Geraldine(제랄딘) 농축산부 장관은 방송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옥수수, 대두와 밀 종자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을 통해 외부에 대한 의존을 막고, 자국의 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존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022년 첫 번째 농기가 가까워지자 콩과 대두, 옥수수를 저장해온 주민들은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iziyaremye Vedaste씨의 말처럼, 이제는 단순히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농작물에 어떤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고 발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그들과 함께 수확한 농산물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마침내 주민들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구촌시민교육

세계시민을 위한 한발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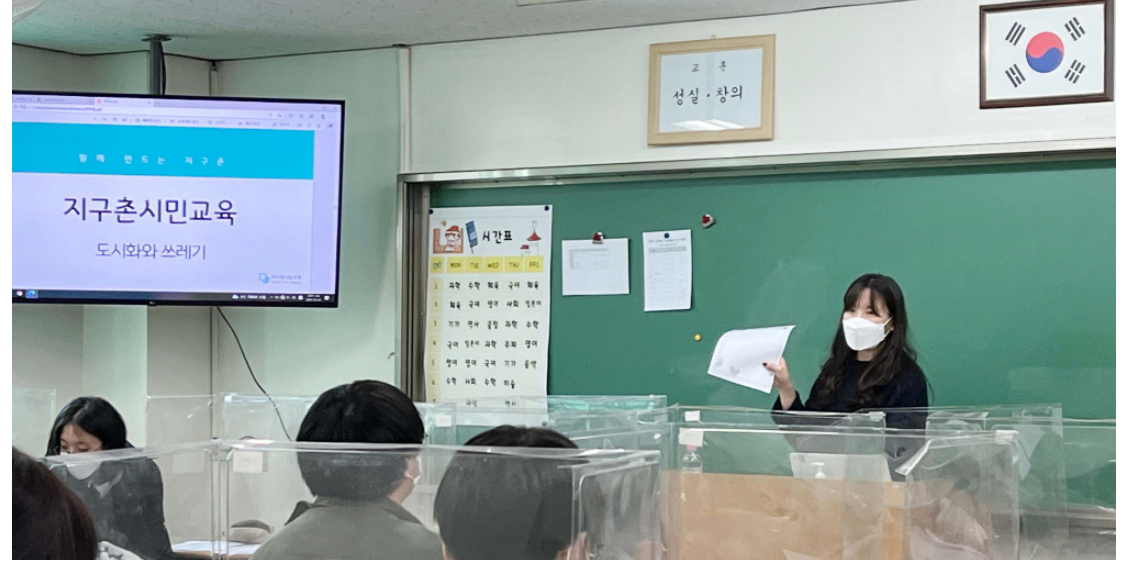
지구촌나눔운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21년 세계시민교육 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세계시민교육 '잇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잇다' 프로그램은 경기도 구리 남양주 지역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강사 양성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 빈곤, 불평등, 환경, 성차별 등의 이슈가 개인에서 지구촌으로 연결되는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비판적 시각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구촌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안이 개발되었습니다. 개발한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며 지구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약 1,700명의 세계시민과 30여 명의 세계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캠프를 통해 지구촌나눔운동의 해외사업사와 연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과 함께 글로벌 이슈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을 세우고 캠페인을 기획해 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시민교육이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세계시민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세계시민교육 '잇다' 진행자용 가이드북 보러가기 ▶



“지난 1년 동안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심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있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은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화, 기후변화, 기후변화, 공중보건 위기, 국제협력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SDGs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세계시민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다양한 교육을 수료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에게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저를 가장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지구촌 사회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이 더 높아지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 의제로 자리매김하여 모두가 꿈꾸고 원하는 세계가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그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강사의 길잡이가 되어준 지구촌나눔운동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시민 강사양성교육 수료자 조다인



후원자 인터뷰_춘강 이동한 이사장

나의 마음속에 웃음을 늘 머물게 하는 일, 그것이 나눔입니다

위의 말은 이동한 이사장의 나눔에 대한 철학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은 지구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 중입니다. 특히 2013년의 에티오피아 장애인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그리고 케냐까지 지구촌 나눔운동과 함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꾸준하고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나눔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웃은 장애인이며, 그들의 삶이 오늘보다 풍요로운 내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소외된 모든 이에게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참여의 징검다리가 되자'를 이념적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철학으로 제주 출신인 이동한 이사장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1987년 제주지역 최초로 장애인 복지 전문법인 춘강을 설립했습니다.

소아마비와 중학생 때까지 약 16차례의 수술과 입원만 약 3년 동안 하는 등의 중증 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는,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한 후 제주도 내에서 30년간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한길을 걸어왔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근로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제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2013년에는 중증 장애인임에도 이를 극복하고 30년간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재활시설을 운영해 온 점과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재단의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호암상 상금인 3억 원 전액을 더 소외된 지구촌의 장애인에게 사용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이 기금 일부를 통해 지구촌나눔운동 에티오피아의 주민자립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동한 이사장님과 지구촌나눔운동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달빛처럼 은은히 길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의 빛의 에너지를 나눔을 통해 채우고 있습니다"

이후 이동한 이사장은 2016년에 지구촌나눔운동의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 지뢰 피해자와 지체 장애인을 위한 의족워크숍센터를 건축하며 장애인지원사업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업의 대상지인 카렌주는 소수민족 카렌족의 근거지로, 60여 년 동안 계속된 정부군과의 내전으로 많은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뢰로 인해 팔과 다리를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의지보조기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동한 이사장 후원을 통해 현지에서 의수족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의수족 제작기술자를 양성하고 의족제작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약 326명에게 의족을 지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케냐 우아신-기슈 지역 '장애인 인식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4p 사업소개 참고



춘강 이동한 이사장, 지구촌나눔운동 김혜경 이사장, 조현주 사무총장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장애인이 평등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립이라고 이동한 이사장은 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게 은은히 다가가는 달빛 희망이 되고자,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평등한 것이라고 희망의 지팡이로 굳건히 서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춘강 이동한 이사장께 지구촌나눔운동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GCS News

2021.08.05.
지구촌나눔운동-플러스코프 업무협약 진행



지구촌나눔운동은 국제개발협력 교육 분야에서 효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러스코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러스코프는 실시간 화상 온라인 플랫폼인 기블(Gible)과 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애듀케이트(Adduca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은퇴한 시니어와 아프리카의 청소년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시니어와 청소년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결합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현지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2021.08.25.
모아펀드 1호 기업,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업무협약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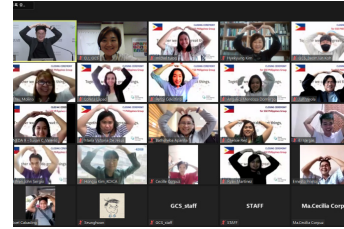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은 지구촌나눔운동에 전직원이 1,000원 이하 소액의 월급을 모아 기부하는 '모아서 아름다운 기부: 모아펀드'의 1호로 참여했다. 더욱이 직원들의 매달 기부금액만 큰 회사 측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펀드한다. 박민영 대표는 "직원들의 소중한 실천이 더욱더 가치가 있게 하려고 회사도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지구촌의 가난과 환경문제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경 이사장은 "모아펀드에 참여해 주신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지구촌의 우호적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1.09.15.
지구촌나눔운동-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진행



지구촌나눔운동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은퇴공무원들의 해외 봉사 참여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황서중 이사장은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은퇴공무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은퇴공무원들과 함께 지구촌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1.10.15.
아시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수료식 진행



지구촌나눔운동은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KOICA와 함께 '아시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 연수생 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프로그램에는 필리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지방 부처 공무원과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와 관련 시민사회 활동가 등 필리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김혜경 이사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필리핀에서의 녹색의, 회복력 있는, 포용적인 개발에 사회적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연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액션플랜을 수립해낸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2022년에도 아시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20.~21.
태국 학교폭력 예방 태권도 캠프 진행



지구촌나눔운동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삼성생명과 '태국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태국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문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이슈 중 하나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자신과 친구들 모두를 지키는 태권도 정신을 기반으로 한 태권도 캠프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1차 캠프(9.18~19)에 이어, 지난 2차 캠프(11.20~21)는 태국 내 락다운 해제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태국 최초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파티팍 선수를 지도한 최영석 감독이 참여하여 태국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주의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태권도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2.21.
온라인으로 전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지구촌나눔운동은 르완다 사업소의 꿈도서관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70여 명과 후원자가 함께하는 "온라인으로 전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르완다 어린이들과 후원자가 직접 만나는 첫 공식 행사였으며, 홍보대사 송재화-지소연 부부의 동화책 읽어주기, 김대운 마술사의 매직쇼, 그리고 르완다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특별 합창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많은 후원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아이들의 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 앞으로도 지구촌나눔운동은 후원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현지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방식의 참여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Behind story

지구촌나눔운동의 23살을 축하하며

어느덧, 12월 10일. 지구촌나눔운동이 2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23주년을 맞이하여 이사장님 인터뷰, 탄소 줄이기 생활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23번째 납부 후원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2,300살이 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금처럼 지구촌 이웃들 곁에서 건강한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혜경씨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모아 혜경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경력 일추 30년 차의 혜경씨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02 탄소 줄이기 공모전

지구촌나눔운동은 지구촌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과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 꾸준히 소통해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상작 보러 가기



1등 수상작 한지민님

03

23번째 납부 후원자 인터뷰

“저의 23살은 마지막 대학 생활을 원 없이 즐겨본 한 해였는데요.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도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주저 없이 23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했던 한 해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의 23살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인터뷰 보러 가기



